

여자가라서 행복해요???

단일 우리가 남성들과 동등한 일을 하고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다면,
 신전산후 휴가를 받고
 아이를 탁아소에 맡길 수 있다면,
 모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정당과 공공기관에 들어가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성과 수태를 조절할 권리가 있다면,

이것 모두는 바로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의
 피나는 투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대회에서의 연설문

1908년 3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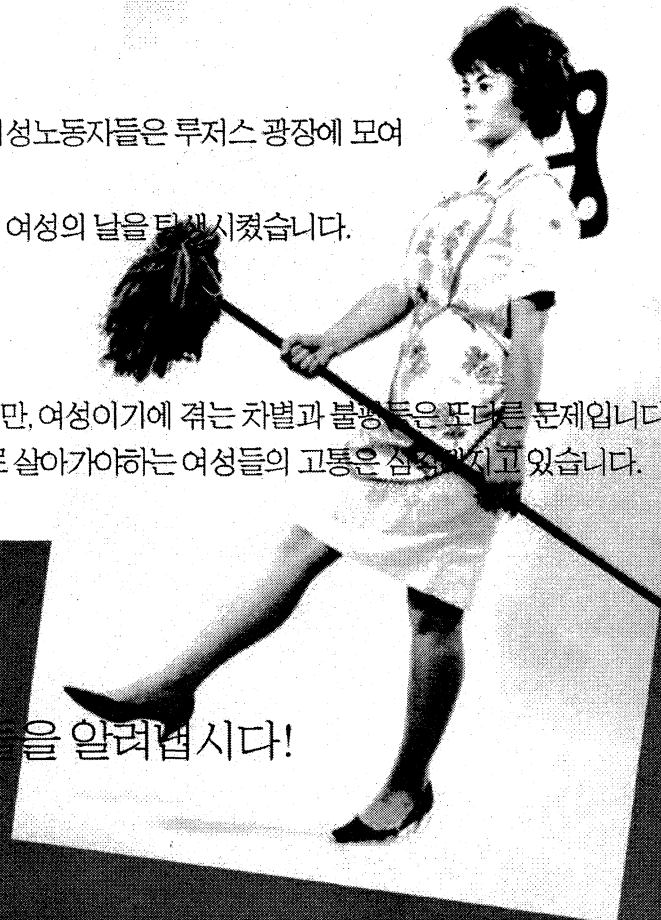
하루평균 12-14시간씩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해야 했던 미국의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들은 루저스 광장에 모여 '평등한 참정권, 노조 결성의 자유, 노동시간 단축'을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의 투쟁은 전 의류노동자의 총파업으로 번졌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했던 여성들의 힘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탄생시켰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사정도 97년 전 여성노동자들을 거리로 나서게 했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성은 한 명의 인간이기 이전에 남성들의 눈요깃감으로, 성적인 대상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여성이 겪어야 하는 차별은 참으로 뿌리가 깊습니다. 실업의 문제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여성이기에 겪는 차별과 불평등은 또다른 문제입니다.

#요즘여자들, 옛날보단 살기 편해졌다고들 하지만 가정과 직장에서 이중으로 노동의 부담을 받으며, 수퍼우먼으로 살아가야 하는 여성들의 고통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했던 97년 전 여성들이 그러했듯,
 더 이상 여자 팔자가 다 그렇지라고 체념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2014년 3월 8일

어머니와 할머니, 지매들과 함께 여성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요구들을 알려냅시다!

여성의 행복은 여성들의 목소리로! 여성들의 힘으로!

여성에게 평등한 일자리를!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여성에게!

여성에게 전가되는 이중노동부담 반대!



3.8 여성의 날 투쟁기획단 200438.cyworld.com

"여자가~ 어딜! 밤늦게 싸돌아다녀?"
 "여자가~ 어딜! 담배를 피우고그래?"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여성에게!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여기고 비하하는 말들, 시선들, 폭력과 차별...
 이 모든 것을 더이상 참고 견디지 맙시다!



여성에게 평등한 일자리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서 차별받고
 구조조정에서는 1순위가 되는 현실.
 이제 이러한 현실에 반기를 들시다.
 여대생 실업해결!! 여성의 비정규직화 반대! 여성의 빈곤문제 해결!

여성에게 젓기되는 이중노동부담 반대!

"그래도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한다?"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일용직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한다는 가부장적 사고는 여성에게
 직장일과 가사일을 병행하도록 하는 이중의 노동부담을 강요하게 합니다.
 더 이상 여성가 가족이 이중노동부담의 짐을 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재생산노동의 사회적 해결을 요구합니다!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여성에게!
 여성에게 평등한 일자리를!
 여성에게 젓기되는 이중노동부담 반대!

위안부 할머니들은 왜 화가나셨나?

- 2.12 누드파문을 돌아보며

이승연의 위안부 누드 파문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뿐만 아니라 많은
 하지만, 이런 분노가 민족의 아픔을... 때문은 이...
 이러한 논리는 민족은 남성이며
 이 남성이 보호해야 했던 여성을 일본제국주의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것...
 그러나 오히려 문제는
 여성으로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수십년간 겪은 고통은 바로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에 대한 무참한 폭력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이승연의 누드 파문 모두
 남성들의 쾌락을 위해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으로 상품화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본질은 같습니다.
 이승연에게 가해지는 온갖 언어폭력과 합성사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2.12 누드 파문은 **성상품화 반대! 성폭력 반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이 자행한 조직적인 성폭력에 대해 분노해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민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성들의 성이 대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상업주의를 말하는 것은 여전히 반여성적인 것입니다.



*3.8 여성의 날 투쟁 일정

- 3시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동자와 함께 하는 투쟁대회"
- 6시 성신여대 운정관 대강당 "3.8 여성의 날 문화제"

"비비를 부르는 환한 목소리"



3월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200438.cyworld.com 3.8 여성의 날 투쟁기획단